"나주 12만 시민 목소리 생생히 전한다"

3기 '시민소통委' 출범 3개 분과 위원 30명 위촉
시정 전반 시민 의견 수렴…민·관 소통 가교 기대

제3기 시민소통위원회가 최근 나주시티호텔에서 출범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제3기 시민소통위원회(소통위)가 출범했다.

나주시는 17일 "최근 나주시티호텔 별관 1층에서 '제3기 시민소통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각계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 3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소통위는 시정 각 분야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 관계 부서에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지역 모니터링을 통한 현안을 발굴하는 등 민·관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임기는 2년이다.

민선 6기 강인규 시장 공약사항으로 2015년 7월 제1기, 2017년 7월 제2기 소통위를 출범했으며 분과별 현장소통의 날 운영, 정책 및 생활불편사항 제안 등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특히 이번 3기 소통위는 기존 1-2기부터 운영해왔던 5개 분과에서 ▲행복한 나주 ▲건강한 나주 ▲잘사는 나주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시는 지난 5월 실시한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성과 평가연구' 일몰제 용역을 통해 9월 23일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기존 5개 분과를 3개 분과로 개편했으며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정원 수도 70명에서 30명으로 축소했다.

이와 관련, 나주시 관계자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수렴과 폭넓은 활동 보장을 위해 분과 경계를 없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은 강인규 나주시장, 김선용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관계 부서 공직자,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경과보고, 위촉장 수여, 소통 특강, 임원 선출 및 분과 구성 순으로 진행됐다.

소통위는 임원 선출을 통해 공동위원장에 채성군(55·빛가람동)씨를, 3개 분과위원장에는 정유선(55·빛가람동)·김용래(58·노안면)·김두헌(63·영산동)씨를 각각 선출했다.

아울러 연중 정기회 2회, 운영위원회 4회를 비롯해 분과위원회 회의를 격월 1회 개최하기로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의 생생한 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은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12만 시민의 바람과 요구를 현장에서 경청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용 시의회 의장도 "시민소통위원회가 시민의 생각과 목소리를 올바르고 가감 없이 전달하는 시정의 동반자가 돼 주길 바란다"며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주=정종환 기자

나주시민오케스트라 1년 여정 마무리 나주시민오케스트라 공연 프로젝트가 최근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 소극장에서 해단식을 갖고 1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나주시민오케스트라 프로젝트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2019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생활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선정에 힘입어 마련됐다. 악기 연주가 가능하거나 관심이 있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오케스트라를 꾸려 지난 2월 발족, 매주 토요일 정기연습과 더불어 총 3회에 걸친 공연을 선보였다. 나주시는 내년 2월 오디션을 통해 제2기 단원을 선발, 프로젝트를 이어갈 계획이다. /나주시 제공

함평군, 예산효율화 '최우수 지자체' 선정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대상 수상

함평군은 최근 '2019 예산효율화 사례 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대상을 수상했다

함평군이 예산효율화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함평군은 17일 "시민단체가 평가한 '올해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 지방자치단체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최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예산효율화 사례 평가'에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대상을 수상했다.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대표 김성호·전 법무부장관)는 2014년부터 매년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 효율화 사례를 평가·시상 하고 있다.

올해 군은 지역 대표축제인 함평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에서 각각 9억5천여만원과 9억8천여만원의 입장수입을 기록, 입장 수입으로만 개최 비용을 넘는 흑자 축제를 달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유치한 렌터카 업체(하이글로벌그룹)를 통해 올해까지 4만여대의 렌터카를 지역에 등록하는 등 군 자주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한 점도 인정받았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납세자인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심사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상보다 더욱 의미 있다"며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나주시, '혁신도시 상생발전' 우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상 수상

나주시는 최근 전북혁신도시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에서 지역상생발전부문 우수지자체에 선정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사진〉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가 개최한 이번 대회는 혁신도시 발전과 내실화를 위해 노력한 지자체 및 이전공공기관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다양한 우수사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나주시는 읍성권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나주읍성도시재생코어센터 설립 등 유휴공간을 기반으로 창업생태계를 조성,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히 100여 년 전 호남 최초로 쌀을 생산했던 옛 나주정미소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을 창출하면서 지역민의 일상적 문화 향유는 물론 혁신도시 이주민, 관광객 유입에 힘을 보태고 있다. /나주=정종환 기자

나주 스타기업 '명성제분' 꾸준한 선행 훈훈

6개월 간 쌀과자 1천200봉지 독거노인·양로원 후원

나주시 관내 쌀 가공 업체인 명성제분(대표 김철진)이 지역 어르신을 위한 꾸준한 후원을 펼치며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나주 일반산단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명성제분은 영양 쌀, 쌀 파스타, 쌀과자 등을 생산하는 쌀 가공 전문 업체로 지난 달 지역 대표기업 육성을 위한 나주시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김철진 대표는 지난 6개월 간 자사 쌀 과자 제품(라이스팝 심쿵) 총 1천200봉지를 나주시 노인양로원과 독거노인 80세대에 전달해왔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나주시와 한전KPS,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주시노인복지관이 추진하는 어르신 밑반찬 배달 사업인 '든든한 밥상'과 연계해 밑반찬 꾸러미에 쌀 과자를 후원하는 등 따뜻한 선행을 이어왔다.

김철진 대표는 "소소하지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상생하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나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실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준 김철진 명성제분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민간 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영수 기자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해야"

함평군의회, 농업대책 촉구

함평군의회(의장 정철희)는 최근 제25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실효적인 농업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철희 함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7명은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은 지속가능한 국내 농업 발전에 위협이 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군의회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관세와 농업보조금이 축소된다면 어렵게 지켜온 농업은 한순간에 쑥대밭이 될 것"이라며 "값싼 수입 농산물 유입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평=신재현 기자